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0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11. 거룩한 주님께 .....	다함께
----------------	-------------------	-----

♠ 공동기도 .....	다함께
--------------	-----

자비하신 주님, 지금 울고 있는 이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세상 저편에서 희망과 체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의 숨죽인 울음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뿐입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주님의 자비만을 기다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십자가 위에서 탄생한 교회가 분열과 파괴의 길로 우리를 몰아대는 이 세상의 힘들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에게 통찰력과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의 광기에 맞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밝은 마음과 열정적인 가슴, 그리고 강한 의지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 위로의 말씀 .....	롬8:33-34 .....	인도자
----------------	----------------	-----

♠ 교 독 문 .....	20. 시편 91 편 .....	다함께
---------------	-------------------	-----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	-----

대표기도 .....	I. 임보람 선생	II. 윤석철 장로
------------	-----------	------------

응 답 송 .....	찬양대
-------------	-----

찬 송 .....	367. 십자가를 내가 지고 .....	다함께
-----------	-----------------------	-----

성경봉독 .....	I. 눅8:11-15 .....	인도자
------------	-------------------	-----

II. 고전4:8-13 .....	이광섭 집사
--------------------	--------

찬 양 .....	찬양대
-----------	-----

말 씬 .....	I.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	김재흥 목사
-----------	----------------------	--------

II. 만물의 찌꺼기 같으나 .....	김기석 목사
-----------------------	--------

거듭기도 .....	다함께
------------	-----

헌신의 찬송 ..... 465.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모욕과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주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평화를 위해 말하고 행동 하겠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증오가 물러가고, 상처입은 이들이 치유받고, 일치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8월 선교회별 월례회	수양회
찬양 인도 : 장성호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태환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유혜경 집사

<b>8월</b>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진	권혁순	박효선	이형숙	박혜경
	헌금위원	김철수	이호원	박창운	배삼순	박효선	정영선

## 유아기적 신앙을 넘어

그들은 아론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기다리다 지친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것에 지친다. 우리는 무언가를 원한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라.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고자 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길을 인도할 보이는 하나님을 갖고 싶어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응답하여 살고자 하지 않고, 이집트에서 가졌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사용할 신들(듣고 다닐 수 있고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을 원했다. 물론 이집트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그 신이 작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신들을 소유한 반면 그들은 신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해방된 이들은 소유할 수 있는 신 즉 자유를 증대시키고, 자존심을 과시하고, 그들의 야망을 채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신을 원했다.

그래서 아론은 그들에게 금송아지, 즉 이집트에서 최고의 존중을 받던 황소 신 ‘아피스’(Apis)를 만들어 주었다.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자유로운 삶을 소름끼칠 정도의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광경을 보고(“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32:6), 너무나 화가 나서 돌판을 땅에 던져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는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사람들은 항상 요구는 하지 않고 보상만 해주는 종교, 기다림이나 공허함 같은 것 없이 그들을 매료시키고 흥겹게 해주는 종교를 찾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일종의 금송아지 종교를 일으키는 것을 도와줄 누군가가 주변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 수 있는 환경으로 거대하고 아름답고 복잡한 창조 세계를 제공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통스럽고 철저하게 완성하신 구속을 제공해 주셨다. “자유를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지루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말한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흥겹게 해주시

오.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오.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초자연적인 물건을 주시오. 우리는 두려운 침묵의 예배를 버리고 할례나 무할례냐에 대한 지루한 논쟁에 가담한다. 우리는 자유와 믿음의 힘겨운 삶이 지루해져서 하나님을 어떤 장식이나 부적이나 흔적으로 축소시키는 옛 종의 종교로 후퇴한다. 우리는 인간이 되는 고통을 경감시켜 주고 공허함과 기다림의 순간을 없애준다고 생각되는 종교적인 개념과 관행을 사들인다. 살아 있는 믿음은 유아기적 종교와 교환된다. 우리는 어리석고 게으르게도, 자유의 확실한 토대를 버림으로써 그리고 옛날의 정서적인 의존 상태나 영적인 미신과 같은 가시덤불에 연루시키는 관행에 손을 댄으로써 우리 삶을 격하시키고 축소시킨다.

바울은 모세가 화가 난 것처럼 화가 나 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달음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자유로운 삶의 가장 큰 위협은 무신론자나 세속주의자로부터 오지 않는다. 그 위협은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곳에서 온다. 즉 종교, 특히 이전의 종교, 어린 시절의 종교, 신경증적인 종교로부터 온다. 불안정과 매서운 바람을 수반하는 자유로운 공기 가운데서 자유롭게 사는 우리는, 따뜻하고 안전하고 포근한 이전 종교에 대한 갑작스런 향수에 빠진다. 이는 과거에서 빌려온 것일 수도 있고, 환경과 눈에 띄지 않게 타협한 것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금송아지, 유대주의의 할례, 감상주의적인 기도, 정형화된 감정, 형식적인 설명 같은 것이다. 종교적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향상시키거나 바로잡거나 정당화할 방법들을 제안하거나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순응하며 안전이나 칭송을 보상으로 받고 지루함에서 풀려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소한 일탈은 서서히 자유의 기초를 침식하고 그리스도께서 해방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큰공간을 축소시킨다.

굳건하게 설 것인가, 종의 멍에를 메는 데 굴복할 것인가? 자유로운 삶이 주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을 때, 든든한 종의 멍에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베르샤예프는 이렇게 경고한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종살이의 땅에서 나왔다면, 그는 심령의 우선 순위와 그의 근원적인 자유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또 필연과 강요의 노리개가 되어서도 안 된다.”

--유진 피터슨, <<자유>> 중에서

## 여름날

김사인

풀들이 시드렁거드렁 자랍니다  
제 오래비 시누 올케에다  
시어미 당숙 조카 생질 두루 어우러져  
여름 한낮 한가합니다

봉숭아 채송화 분꽃에 양아욱  
산나리 고추가 핍니다  
언니 아우 함께 핍니다

암탉은 고질고질한 병아리 두엇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의젓합니다

나도 빼약거리는 내 새끼 하나하고 그 속에 앉아  
어찌다 비 개인 여름 한나절  
시드렁거드렁 그것들 봅니다  
긴 듯도 해서 긴 듯도 해서 눈이 십니다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